

2024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4
가. 시장 전망	4
나. 주요 경제지표	5
2. '24년 주요 이슈 및 전망	6
가. 아르헨티나 신정부,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 또는 포퓰리즘 지속	6
나. 자원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7
다. 농축산업 분야 성장세 유지	9
라. 건설·인프라 분야 투자 일부 지속	9
마.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10

II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2. 시장 분석	20
가. 시장 특성	20
나. 교역	22
다. 투자	27
라. 자원 개발	28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0
가. 교역	30
나. 투자 진출	32
다. 협력 유망 분야	34

III 진출전략

1. PEST 분석	38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39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0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47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49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51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51

Chapter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4년 아르헨티나 경제, -4.2% 하락 전망

- 2023년-2.9% 하락에 이어 2년 연속 경제 역성장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임금 하락 및 민간 소비 감소로 2024년 실질 GDP 마이너스 성장 전망
 - * 이자율 상향 조정 : ('23.3월) 78% → ('23.10월) 133%
 - 세 자릿수에 달하는 고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인한 정책 신뢰도 약화,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대규모 외채 및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정책 등이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 ('22년 인플레이션율) 89.5%, ('23년 인플레이션율, 전망치) 135.2%
 - 농업 및 에너지 수출 증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것으로 보이나, 아르헨티나 경제는 역성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구	백만 명	43.9	44.4	44.8	45.2	45.6	45.5	45.8	46.1
명목GDP	십억 달러	642.5	523.9	447.0	385.9	487.2	630.1	677.8	645.9
1인당 명목GDP	달러	14,588	11,667	10,604	8,571	10,658	13,845	14,809	14,024
실질성장률	%	2.8	-2.6	-2.0	-9.9	10.4	4.6	-2.9	-4.2
실업률	%	8.4	9.2	9.8	11.6	8.8	6.8	7.0	9.0
소비자물가상승률	%	24.8	47.6	53.8	36.1	50.9	89.5	135.2	242.8
재정수지(GDP대비)	%	-5.9	-4.9	-3.8	-8.4	-3.6	-4.5	-4.4	-3.5
총수출	백만 달러	58,662	61,801	65,162	54,946	77,987	88,515	71,552	85,501
(對韓 수출)	"	612	406	865	894	1,824	2,572	1,031	-
총수입	"	64,109	62,544	46,928	40,315	59,291	76,163	70,291	63,868
(對韓 수입)	"	836	536	341	332	391	529	379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5,447	-743	18,234	14,631	18,696	12,352	1,261	21,633
경 상 수 지	"	-31,151	-27,084	-3,493	3,121	6,708	-4,290	-17,223	2,946
환율(연평균)	ARS/US\$	16.56	28.09	50.23	70.51	94.99	130.69	308.4	1,197.30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1,155	1,911	1,539	1,294	1,363	2,323	-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11,857	12,161	6,663	4,019	6,534	15,087	-	-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對韓 수출입 '23년 자료 9월 기준
 자료: EIU('23.10.15 기준 전망), IMF, UNCTAD, KITA

- ※ 신정부 성향에 따라 경제·교역 정책 변동 가능성 확대
- ※ 전략광물 자원인 리튬 중심으로 자원 개발 투자 및 프로젝트 활성화 전망
- ※ 가뭄 피해로 타격을 입었던 농축산업 성장세 회복 및 수출 증가 기여
- ※ 전자상거래(E-Commerce) 시장 및 온라인 유통망의 지속적인 성장

가. 아르헨티나 신정부,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 또는 포퓰리즘 지속

▣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행(11.19)

- 10월 22일 치러진 대선 투표에서 예비선거(PASO)에서 3위 득표율을 차지했던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경제부 장관이 36.68%의 득표율로 최다 득표 후보에 오르며 지지율 반등세 시현
 - 반면, 예비선거(PASO)에서 1위를 차지했던 야당 후보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는 29.98%로 2위에 그쳐 최다 득표를 예상했던 시장에 충격
- 여당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국민통합당 후보(중도좌파)는 11월 19일 투표에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자유전진연합 후보(극우파)와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할 예정*
 - *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는 득표율 1위 후보가 45% 이상을 획득하거나 40% 이상을 획득하고 2위와 표 차이가 10% 이상 발생하면 결선 투표 없이 당선 확정. 그 외에는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 진행
- 정치 이념과 정책 방향이 완전히 다른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 대선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새로운 패러다임 진입 또는 포퓰리즘 지속의 갈림길에 설 전망

▣ 이례적인 대선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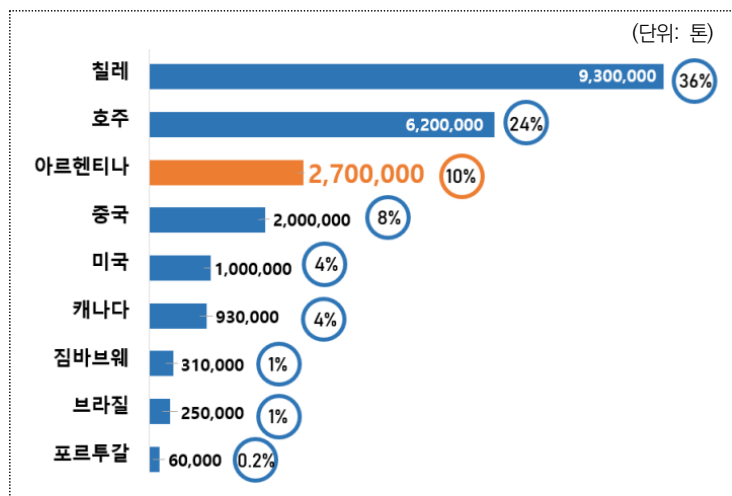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금융시장('23.10.23 기준)은 대선 투표 결과에 대해 일차적으로 하기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국가위험지수: 2400 포인트에서 2600 포인트로 상승(+7.5%)
- 블루(비공식 시세) 환율: ARS 900/USD 1에서 ARS 1,100/USD 1로 상승(+22%)
-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아르헨티나 기업 주가: 최소 4% 하락
- 아르헨티나 주가지수(MERVAL): 부에노스아이레스 증권거래소 주가 약 9% 하락

나. 자원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 전략광물자원인 리튬 중심으로 아르헨티나 자원 개발 프로젝트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은 270만 톤(전 세계 매장량의 10%)으로 전 세계 3위
 - 볼리비아·칠레와 함께 남미 리튬 삼각지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아르헨티나 리튬은 카타마르카(Catamarca)주, 살타(Salta)주, 후후이(Jujuy)주에 매장량 집중

〈국가별 리튬 매장량〉



주: %는 전 세계 매장량 대비 수치
자료: USGS 2023

- 현재 33개의 리튬 프로젝트가 사전 경제성 평가 단계 이상이며,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생산 중인 프로젝트는 2개였으나, '23년 6월부터 Cauchari-Olaroz*가 건설에서 생산 단계로 들어서며 총 3개로 증가

* 아르헨티나 후후이주에 위치한 중국 자본 기반 리튬 생산 프로젝트

- 현재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량은 약 4.5만 톤에 불과하나 개발 프로젝트들이 완료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
- 또한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광산에서도 늘어나는 수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 투자를 시행하여 '24년 생산량은 약 8.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우리 기업 포스코, 리튬 생산 프로젝트 본격화
 - 한국 회사로는 포스코가 살타(Salta)주에서 염호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1단계 8.4억 달러(운전자금 포함)를 투자하여 생산 공장을 건설 중
 - 또한 9.54억 달러 규모의 2단계 투자를 결정했으며, '24년 상반기 공장 완공 및 연간 2만 5,000톤(전기차 약 60만 대용)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할 계획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기업 현황(2022년 기준)〉

(단위: LCE 천 톤)

구분	생산능력(연)	2018	2019	2020	2021
Mina Fenix (탄산리튬, 염화리튬)	27.8	21.6	20.5	21.1	21.5
Salar de Olaroz (탄산리튬)	17.5	12.5	13.2	11.3	15.8
총계	45.3	34.1	33.7	32.4	37.3

자료: Roskill 2021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기업 현황〉

프로젝트명	Mina Fenix	Salar Olaroz	Cauchari-Olaroz
생산 리튬 종류	수산화리튬, 탄산리튬	탄산리튬	탄산리튬
투자자	Livent Corporation	ALLKEM(66.5%) (Orocobre Ltd+Galaxy Lithium) Toyota Tsusho Corporation(25%) JEMSE (8.5%)	Ganfeng Lithium(46.66%) Lithium Americas(44.84%) Jemse(8.5%)
오퍼레이터	Minera del Altiplano	Sales de Jujuy S.A.	Minera Exar
생산량(수출량)	27,800 LCE Tn	17,500 LCE Tn	40,000 LCE Tn
수출국	중국(41%), 미국(41%), 유럽(15%)	중국(44%), 유럽(15%), 일본(15%), 러시아(10%)	중국* *계약상 총 생산량의 60% 할당

자료: 아르헨티나 광산협회(CAEM)

다. 농축산업 분야 성장세 유지

- 대두 및 식물성 유지(乳脂) 등 주요 농작물 수출 증가 전망
 - 아르헨티나는 전형적인 1차 산업 발달국으로 농산물·농산가공품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출량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2024년에는 가뭄 해소로 수출량이 원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
 - 특히, 주요 농산품인 대두 및 부산물 수출이 외환 유입 및 외환 보유고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은 아르헨티나 경제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할 전망

라. 건설·인프라 분야 투자 일부 지속

■ 천연가스관 프로젝트 투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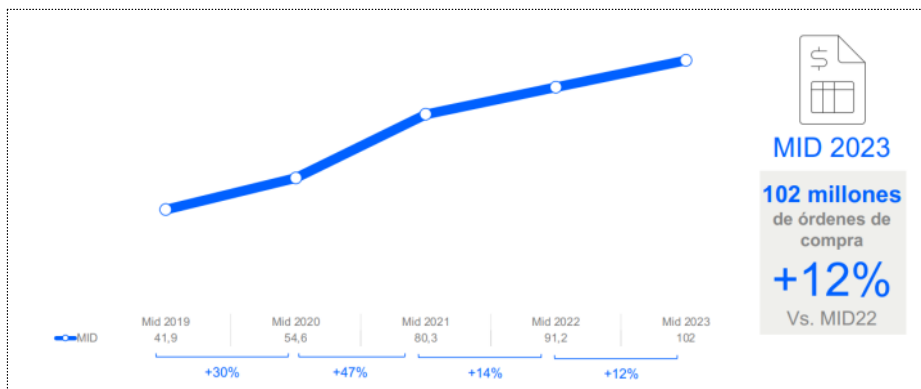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정부는 네우켄(Neuquén)주 트라타옌(Tratayen)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살리켈로(Salliqueló; 부에노스아이레스市 남서쪽 약 470km) 및 산헤로니모(San Jerónimo; 부에노스아이레스市 북서쪽 약 350km)로 운송하는 연장 583km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Néstor Kirchner)’ 가스관 프로젝트 진행 중
 - 동 프로젝트를 통해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주요 소비 지역 및 가정 공급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전망
 -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프로젝트 총규모는 약 34억 달러로 추산되며, 1단계 프로젝트에 투입될 자금은 약 15억 달러임
 - '23년 8월부터 살리케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수도권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1차 구축되어 가동을 시작
 - 동 프로젝트는 '24년 하반기~'25년 상반기에 걸쳐 2차까지 완공될 전망

마.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 전자상거래 산업 성장 지속

-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91%가 최소 한 번 이상 온라인 구입을 진행
 - 또한 2023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건수(Ticket)가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 구매자 중 67%가 18~49세 사이이며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소비재로 그 중 식료품 구매가 활발한 것으로 집계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판매 건수(Ticket) 증감률〉



자료: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협회(CACE)

- 특히 온라인 구매자가 증가하며 까르푸(Carrefour), 디아(Dia), 코토(Coto) 등 현지 대형 유통망에서 온라인 판매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온라인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

Chapter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대선 결과 예측 불가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 ※ (경제) 연 135%를 초과하는 고인플레이,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24년 -4.2% 성장 전망
- ※ (산업) 2차 산업, 자동차산업 주력 육성, 전자상거래·한류 관련 소비재 시장 성장
- ※ (정책) 수입대체·현지화 촉진 정책 추진, 외환보유고 확충 위한 수입 규제 지속 전망

가. 정치 환경

▣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 불가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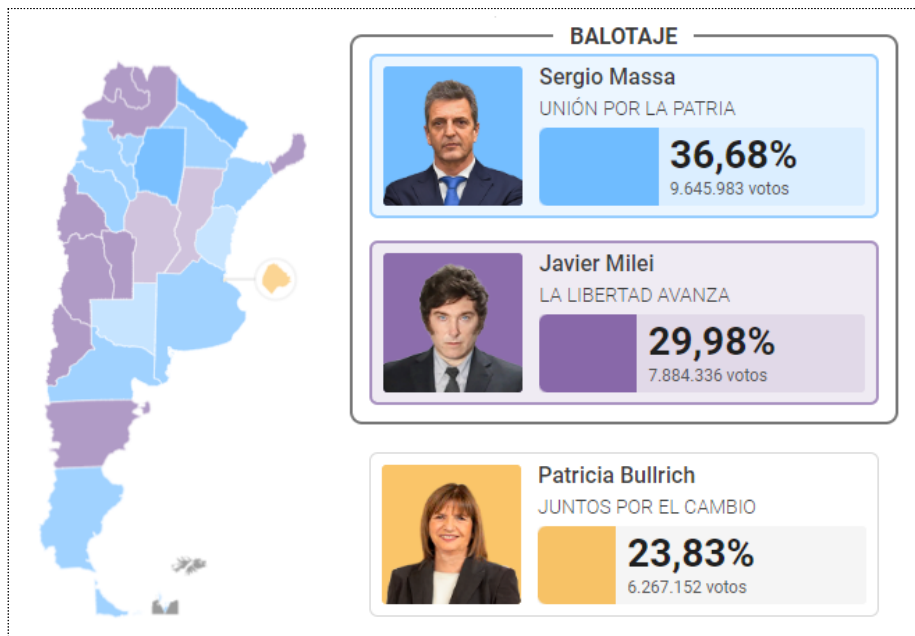
- 2023년 10월 22일 진행된 대선 투표에서 결국 당선자 없이 결선투표* 진행
 - 여당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Sergio Massa) 국민통합당 후보(중도좌파)는 11월 19일 투표에서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자유전진연합 후보(극우파)와 대통령직을 놓고 경쟁할 예정
 - 여당 후보의 경우 지난 4년간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정부의 경제 성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지지층을 보유
 - 자유경제 지지자인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는 예비선거 득표율 1위의 여세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3위 후보인 파트리시아 불리치(Patricia Bullrich)의 지지를 얻으면서 결선투표에서 막판 역전 기대
- *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는 득표율 1위 후보가 45% 이상을 획득하거나 40% 이상을 획득하고 2위와 표 차이가 10% 이상 발생하면 결선투표 없이 당선 확정. 그 외에는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 진행

〈아르헨티나 정치 구조〉

정부 형태	대통령제(4년 연임제)
국가원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입법부	양원제(상원 72석, 하원 257석)
주요 정당	Juntos por Cambio, Frente de Todos 등
정부 성향	좌파주의, 포퓰리즘

- 여당 후보 당선 시 포퓰리즘 정책 시행 지속 가능성 증가
 - 포퓰리즘 정책 시행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고 있는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 시행이 불가피할 전망
- 야당 후보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여 기존 정치 세력과의 연대 필요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는 초선 하원의원으로 정치적 기반이 취약해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기존 야당 연합인 변화를 위한 연합(Juntos por el Cambio) 등과 정치적 연대가 필요할 전망

〈아르헨티나 2023년 대선 결과〉



자료: 아르헨티나 선거위원회(Camara Nacional Electoral) 자료 가공

나. 경제 환경

▣ 2024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역성장 심화 전망

- '21~'22년 플러스 성장 전환에 성공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시 경기 침체를 거듭하며 '23년 -2.9%, '24년에는 -4.2% 성장 전망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3년 상반기까지 '24년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으나 긴축정책 및 통화 통제 강화에 따른 고인플레이션, 민간 소비 위축 등으로 전망치를 -4.2%로 대폭 하향 조정
 - 광산업 및 리튬 수출 증가, 신정부의 개혁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부터 아르헨티나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2023~2028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연평균 1.4% 성장 예상
 - 현재 진행 중인 원자재 가격 상승은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농업, 에너지, 광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전망
 -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가 재정, 경제 통제 정책, 장기 자금 조달 애로 및 기업 활동 규제 등은 아르헨티나의 성장 잠재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 전망
 - 또한 만성적 인플레이션 지속과 함께 극/빈곤층 확대로 치안·안전 문제가 악화되며 사회불안이 가중될 전망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

경제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 GDP 성장률	-2.9	-4.2	5.0	4.4	3.1	3.0
실업률(평균)	7.0	9.0	7.0	7.6	7.0	6.8
소비자 물가 상승률(평균)	135.2	242.8	37.8	26.9	22.9	19.9
금리(평균)	97.6	92.5	27.5	6.8	1.0	0.0
경상수지(GDP 대비)	-2.8	0.6	-0.3	-0.6	-0.6	-0.7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2028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3.10.15 기준 전망)

▣ 인플레이션, 아르헨티나 경제 부담 가중 전망

- 국제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 시행된 가격 통제와 공식/비공식 환율 간 격차 확대는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
 -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에 따라 긴축정책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보조금 인하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이 국민의 원성을 살 수 있어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
- 지속적인 환율 상승 압박 증가
 - 대선 결선투표 결과,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 승리 시에는 경제가 달러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폐소화 최대 평가절하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도래 위험 증가
 - 다만,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후보가 극단적인 통화정책* 시행 계획이 있으나 야당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언론이 대다수
 -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폐쇄, 경제 달러화 등
- '23년 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 소비는 -2.2%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며 '24년에는 -9.5%로 소비 성장세가 대폭 위축될 것으로 예상
 - 신정부 정책 신뢰 회복 등 영향으로 '25년부터 민간 소비 성장세는 플러스 전환 전망

〈아르헨티나 연도별 민간 소비 증감률〉

(단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민간 소비	-2.2	-9.5	5.5	5.3	3.2	2.9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2028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3.10.15 기준 전망)

다. 산업 환경

▣ 소비재/완성품 등 제조산업 육성 및 현지 생산 기반 확대 추진

- 농목축업 등 1차 산업이 발달한 아르헨티나는 소비재 생산 기반이 취약
 - 현지 생산 품목(섬유, 플라스틱, 자동차, 철강 등)의 경우 자국 생산기업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비자동 수입 승인 품목으로 분류

- 아르헨티나 정부는 2차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지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을 더 신속히 허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

■ K-Culture 관련 소비재 산업

- 최근 아르헨티나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 중남미 전체 트렌드 중 하나로 K-Culture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가
 - 한국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현지인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르헨티나 기업들이 한국 식품 등 문화 관련 제품에 관심 표명
- * 한국문화원(Centro Cultural Coreano), 한인회 행사 등을 통해 K-Pop, K-Movie, K-Food, K-Beauty 등 한국 문화가 빠른 속도로 현지에 확산 중

■ 자동차 산업

-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은 2013년 약 80만 대에 달하며 호황기를 기록한 이후 경기 침체를 겪으며 2020년 25.7만 대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2021년부터 회복세를 기록 중
 - 2021년 자동차 생산량은 43.5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70% 성장하였으며 2022년에도 53.7만 대로 23.5%의 성장률을 기록
 - 2023년 1~9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18.1% 증가한 46.5만 대가 생산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시현
-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은 내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
 - 자동차 최대 수출국은 브라질로 전체 수출 물량의 60% 이상을 브라질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미,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2023년 1~9월간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24.5만 대로, 이 중 브라질로 수출된 물량이 약 15.6만 대로 전체 수출 물량 중 63.6%를 차지
 - '24년의 경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내수 판매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아르헨티나 자동차 산업을 견인할 전망

■ 전자상거래(e-Commerce) 산업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현황
 - 전자상거래 형태는 B2C(79%), C2C(16%), B2B(8%)로 구성. B2C 형태가 압도적이며, 전자상거래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와 리테일(Retail)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
 - 아르헨티나의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로 독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 *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는 2008년 최대 경쟁업체인 데레마떼(DEREMATE)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중남미 18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방법
 - 아르헨티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사도 해외 공급업체가 직접 벤더로 등록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트레이드(Cross-Border Trade, 이하 CBT)를 아르헨티나 및 칠레에 런칭했음*
 - 다만 현지 정부 당국의 수입 규제, 세금 및 물류비용 등을 고려 시 일부 경쟁력 있는 소비재에 한하여 CBT를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 현재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온라인 플랫폼은 중남미 18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나, 해외 공급업체가 벤더로 참가할 수 있는 CBT는 브라질, 멕시코 및 콜롬비아에 한정
 - * 아르헨티나가 현재 CBT를 진행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일반소비재 위주로 진행

라. 정책·규제 환경

■ (산업정책) 자동차 산업 부양 정책 도입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양법을 제정
 - 법령 27686 제정을 통해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부가세 환급, 2. 부가세 하향 조정(21% → 10.5%), 3. 소득세 정산 시 가속상각 허가, 4. 2031년까지 수출세 0% 적용임
 - 실제로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포드(미국)는 브라질 공장을 폐쇄하고, 아르헨티나 파체코(Pacheco) 공장에 6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외환 규제) 외환보유고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외환 통제 조치 지속

-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 통제를 위해 개인 외환 구매 금액 상한 설정, 중앙은행 송금 규제 조치 강화 등을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채권 보유자들과의 채무 재협상을 공식화
 - 개인 저축용 달러 구매 월 200달러로 제한*, 수입대금 송금 시 중앙은행 허가 필수, 수입대금 선지급 불허 등 외환 통제 조치를 지속 중
 - * 달러 구매액은 월별 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월 200달러 한도 내에서 구매 가능
(ex. 특정 월의 카드 사용액이 50달러라면 해당 월의 달러 구매 허용액은 150달러)
- 특히, 외환 규제를 통해 수입 관련 대금 지급을 어렵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입대금 송금 시 애로가 속출

■ (수입 규제)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 품목 중심으로 수입허가제(LNA, Licencia No Automatica) 시행 중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입허가제를 통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민감 품목(자동차, 섬유, 가전기기 등)에 속하는 완성품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수입을 억제 중
- 현재까지 총 11번의 수정을 거쳐 HS Code 1,500개 이상을 규제 대상으로 분류
 - 수입허가제 대상 HS Code 리스트의 경우 기존에는 추가 및 삭제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수정에는 추가만 진행
 - 기본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HS Code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수입 승인 기한을 최대 72시간에서 60일로 조정함으로써 수입상이 수입 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증가
 - * 수입허가제(LNA) 주요 품목은 섬유(원사, 원단, 의류), 가전제품, 장난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일부), 오토바이, 자전거, 가죽제품, 철강(철사, 튜브, 파이프, 못), 모터 등에 집중

■ (수입 관리제도) 기존 수입 관리제도인 수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IMI; 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입 시스템(SIRA; Sistema de Importaciones de la República Argentina)으로 대체

- 기존에 사용하던 수입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SIMI)은 바이어가 수입하는 규모와 판매 능력의 부적합한 매칭(실제 바이어 매출 액수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경우 등) 및 소송을 통한 수입 승인 획득 용이 등 정부 측 애로사항이 존재, 이에 신규 수입 관리제도(SIRA) 도입

- 신규 수입 관리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수입 시스템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임
- 기존에 SIMI A/B로 분류하여 2021년/2020년 수입액 대비 증가액을 기준으로 수입 허가 및 달러 구매 허가를 승인했던 이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신규 시스템(SIRA)은 아르헨티나 국세청(AFIP)을 통해 수입자의 재무 상태가 확인되어야 수입 허가 획득이 가능
- 또한 수출입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신규 외환 구매 관련 계좌 (Cuenta Corriente Única de Comercio Exterior) 개설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외환 구매 신청/승인이 가능
 -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승인 허가 여부(SIRA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진행될 것임을 확인한 뒤 외환 구매 승인
 - 이에 따라 수입 승인 허가를 받고 난 뒤에도 현재 아르헨티나로 수출 시 주요 문제점 중 하나인 ‘수입대금 송금’ 관련 문제는 지속될 전망
 - 특히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수입자의 재정능력’에 따른 외환 구매·송금 승인 예정으로 수입 승인 허가 전까지는 선송금 가능 여부 파악 불가

- ※ 풍부한 천연자원(식량, 광물 등) 및 재생에너지원(풍력, 태양에너지, 그린수소 등) 보유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
-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남미 진출 거점 역할 수행 가능
- ※ 수입 대체를 위한 경공업 위주 산업 발달, 내수시장 겨냥 제조업 투자 진출 모색 가능

가. 시장 특성

▣ 천혜의 자연과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아르헨티나 국토 면적은 278만㎢로 세계 8위이며, 이 중 53%가 경작지로 활용 가능하며 국토의 75%가 미개발 상태
- 에너지, 식량 및 광물자원의 보고
 - 광물자원 보유량* 세계 6위, 국토의 4분의 3이 미개발 상태로 향후 자원 개발 잠재력이 다대
 - 농목축 산업은 아르헨티나 GDP 비중의 6% 수준이나, 농축산물 및 가공품 수출이 아르헨티나 총수출의 60%를 상회
 - * 광물자원 매장량: 셰일가스 2위, 리튬 3위, 셰일오일 4위
- 풍력 및 태양에너지, 그린수소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보유
 - 풍부한 일조량과 풍력 발전에 적합한 환경으로 재생에너지원 발전 가능성이 큰 국가이나,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재생에너지원 개발 활동 저조
 - 전임 마크리(Macri) 정부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Law 27.191)*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젝트 유치를 진행하고 있어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음
 - * '25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재생에너지 지원 펀드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

■ 중남미 주요 국가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의 주요 경제대국이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남미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회원국(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과의 수출입 시 부과되는 관세, 물류비 측면에서 혜택 수혜 가능
 - * 아르헨티나의 경우 남미에서는 비교적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나, 부품 등 조달이 원활치 않음. 이에 따라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 특히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입 파트너는 브라질로서 남미 1, 2위 시장 공략 가능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진행 중
 - 2018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현재(2023년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상품, 서비스 및 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 조달, 기술장벽(TBT) 협력 등 전 분야에 걸쳐 협상 진행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을 통해 남미 신흥시장 선제적 확보* 및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완성 가능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은 남미 전체 인구의 70%(2.95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68%(3.4조 달러) 차지('20년 기준 수치)
 - ** 한-칠레 FTA('04.4월 발효), 한-페루 FTA('11.8월 발효), 한-콜롬비아 FTA('16.7월 발효), 한-중미 FTA('21.3월 중미 5개국과 전체 발효) 등

■ 중남미에서 7번째로 큰 소매시장 보유

- 2012년 소매 판매액은 1,117억 달러 기록. 다만, 이후 10년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419억 달러로 집계
 - 2023년 아르헨티나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매시장의 성장이 더딘 상황이며, 전례 없는 가뭄으로 경기 촉진제 역할을 하는 농축산업이 부진을 겪으며, 소매시장을 포함한 제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 팬데믹은 아르헨티나 소매 판매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역으로 전자상거래(온라인 판매) 시장의 성장을 촉진

■ 경공업 위주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의 한계로 수출 경쟁력 상실

-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중간재 산업인 중화학 산업 육성 없이 경공업 위주의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추진 중

- 아르헨티나 수입 중 자본재 및 그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이 70% 내외를 차지하며, 수입 대체 산업이 현지 조립생산 형태로 굳혀지는 추세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본재 수입 관세 하향 조정 등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생산 제품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상실로 대외 수출 확대 애로
-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중
 - 현재 아르헨티나는 수입승인제도(SIRA) 기반으로 완제품 수입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간재나 현지 생산을 위한 자본재 수입 승인은 일반 완제품보다 수월하게 진행하는 등 수입품 대체 산업화를 위한 정부 측 노력 존재

▣ 노동시장의 경직성

- 전통적인 강성 노조 및 근로자 중심의 현지 노동법(근로계약법)은 아르헨티나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 경직된 노동법으로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며, 노무 분쟁 발생 시 법원은 대부분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여 근로자 해고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

나. 교역

▣ '24년, 국제 경기 침체 및 폐소화 약세 등으로 아르헨티나 교역량 감소 전망

-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 내수시장 침체 및 외환 규제로 수출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23년에 이어 '24년도 교역량 감소 지속 전망
 - 아르헨티나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자본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지 경기가 활성화되면 수입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 '22년에는 점진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며 예년 수입량 회복에 성공했으며 '23년도에는 농축산물 수출 감소, 수입 규제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수출액 19% 감소, 수입액 9.7% 감소 전망
 - '24년 수입액은 3.9% 증가할 전망이나 이는 '23년 수입 규제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수입 회복에 의한 것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폐소화 약세로 인해 '22년 수입액 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할 전망
 - 수출의 경우, 가뭄으로 부진했던 수확량이 '23년 회복되어 '24년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24년 수출액은 14.3% 증가할 것으로 전망

〈아르헨티나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수출액	88.5	71.6	81.9	87.7	91.8
총 수입액	76.2	68.8	71.5	78.6	82.8
무역수지	12.4	2.8	10.3	9.0	9.1
경상수지	-4.3	-15.3	-11.0	-14.4	-15.2
경상수지(%)	-0.7	-2.3	-1.7	-2.1	-2.0

주: 2023년은 추정치, 2024~2025년은 전망치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23.10.15 기준 전망)

■ 국가별 수출입 현황

- 주요 무역 대상국은 브라질, 중국, 미국 순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약 30%, 수입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무역구조가 특징
 - (수출) 아르헨티나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 수출이 약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에 따른 농축산업 생산량 및 국제가격 변동에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음
 - * 가뭄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확량 감소가 '23년 경제에 타격을 입힌 요인 중 하나
 - (수입)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의 공산품·중간재 및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2		국가	2023(1~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브라질	12,633	7.43	브라질	8,907	-4.61	17.42
2	중국	7,924	28.76	미국	3,966	-22.61	7.76
3	미국	6,581	33.93	중국	3,958	-22.88	7.74
4	칠레	4,927	18.02	칠레	3,644	-4.18	7.13
5	인도	4,542	5.80	인도	2,017	-44.49	3.95
6	네덜란드	3,563	19.42	페루	1,896	5.37	3.71
7	베트남	3,222	0.06	베트남	1,781	-29.00	3.48
8	페루	2,438	22.20	우루과이	1,258	13.67	2.46
9	인도네시아	2,104	12.98	네덜란드	1,212	-53.03	2.37
10	한국	2,017	17.30	스페인	1,169	-14.80	2.29
.	.	.	.	.	.	.	.
.	.	.	.	.	.	.	.
.	.	.	.	.	.	.	.
13	.	.	.	한국	939	-40.8	1.84
전체		88,268	13.40	전체	51,143	-23.94	100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아르헨티나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연번	국가	2022		국가	2023(1~9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비중
1	중국	17,501	29.40	브라질	14,123	12.81	24.29
2	브라질	15,978	28.94	중국	11,045	-17.24	18.99
3	미국	10,263	75.01	미국	6,941	-18.71	11.94
4	독일	2,719	7.61	파라과이	3,109	87.41	5.35
5	볼리비아	2,220	110.47	독일	2,144	1.51	3.69
6	파라과이	1,958	-32.79	이탈리아	1,381	9.66	2.37
7	인도	1,849	32.69	태국	1,357	-2.96	2.33
8	태국	1,813	16.73	멕시코	1,200	-7.97	2.07
9	멕시코	1,710	21.91	베트남	1,157	15.85	1.99
10	이탈리아	1,677	27.89	인도	1,133	-21.52	1.95
.	.	.	.	.	.	.	.
.	.	.	.	.	.	.	.
.	.	.	.	.	.	.	.
21	한국	729	12.46	한국	503	-11.12	0.87
전체		81,522	29.02	전체	58,156	-10.06	100

자료: GTA(Global Trade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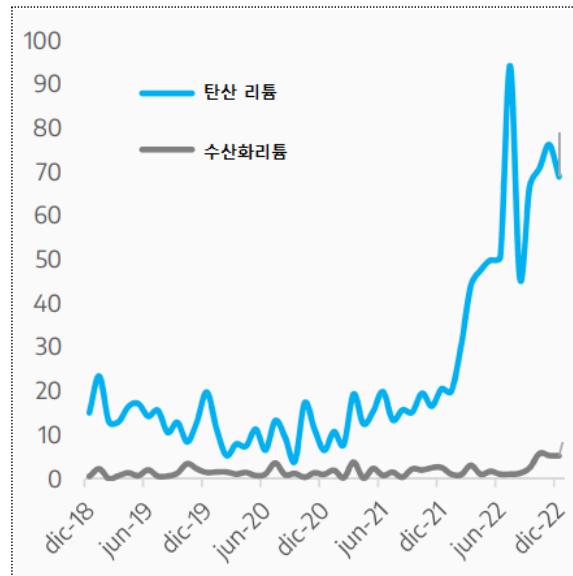
■ (공급망) 아르헨티나 보유 전략광물은 리튬으로, 생산 전량 수출 구조

- 2022년 아르헨티나의 리튬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4% 증가세 기록*
 - 주요 수출국은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선투자-생산물량 전량 수출 조건으로 생산 즉시 투자기업에 수출

* 동 수치는 아르헨티나 전체 광물 수출액의 18%로 '18년 대비 15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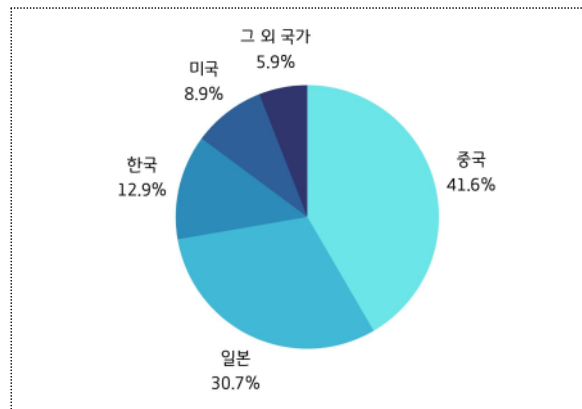
〈아르헨티나 리튬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2022)

〈아르헨티나 리튬 주요 수출국〉



자료: 아르헨티나 경제부(2022)

- 대부분의 리튬 프로젝트가 자금 조달을 위해 착수 전부터 글로벌 에너지 기업 및 전기차 생산기업과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생산 중이거나 추후 생산 예정 물량 모두 구매자가 존재
 - 리튬 직접 채굴(예: POSCO), 합작사(JV) 설립, 지분 인수, 장기 구매계약(Off-take) 등을 통해 리튬 확보

■ 對韓 수입 규제 현황

- 한국 대상 수입 규제는 전체 2건으로, '23년 기준 1건 감소
 - 유형별: 2건 모두 반덤핑 규제 조치
 - 품목별: 화학 1건, 전기/전자 1건
 - '23년 말 디옥틸프탈레이트가 만료되어 '24년 기준 반덤핑 관세 부과는 삼상 유입 변압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2건
 - '22년 말 기준으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반덤핑 관세 부과가 만료되었으나 현재 일몰 조사 중으로 관세 부과는 유지할 전망
- * 아르헨티나 정부(경제부)는 '23.9.27 일몰 조사 기한 연장(미지정) 통보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 규제 내용〉

연번	품목분류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1	화학	디옥틸프탈레이트 (DOP; Deoctyl Phthalate)	2917.35.00	반덤핑	'17.4.5	〈최종〉 '18.10.4 〈만료〉 '23.10.5	- 대상 국가: 중국, 멕시코, 한국 - '18.10.4: 반덤핑 최종 판정 * 반덤핑 관세(6.73%) 확정 -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18.10.4~'23.10.4 * 만료
2	전기전자	삼상 유입 변압기 (Transformer)	8504.23.00	반덤핑	'13.1.3	〈최종〉 '14.7.2 〈일몰〉 '19.11.22	- 대상 국가: 한국, 중국 *반덤핑 관세: 한국(52%) -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17.7.17~'24.11.22
3	화학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3907.60.00	반덤핑	'12.4.25	〈최종〉 '13.10.24 〈재심〉 '19.10.22	- 반덤핑 관세: 17.61% * '16.3.29: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 실시 * '17.9.28: 재조사 결과 발표, 반덤핑 관세율 상향 조정(8%→17.61%) - 반덤핑 관세 부과기간: '13.10.24~'22.10.22

자료: WTO, KOTRA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정리(자료 검색일: 2023.9월)

다.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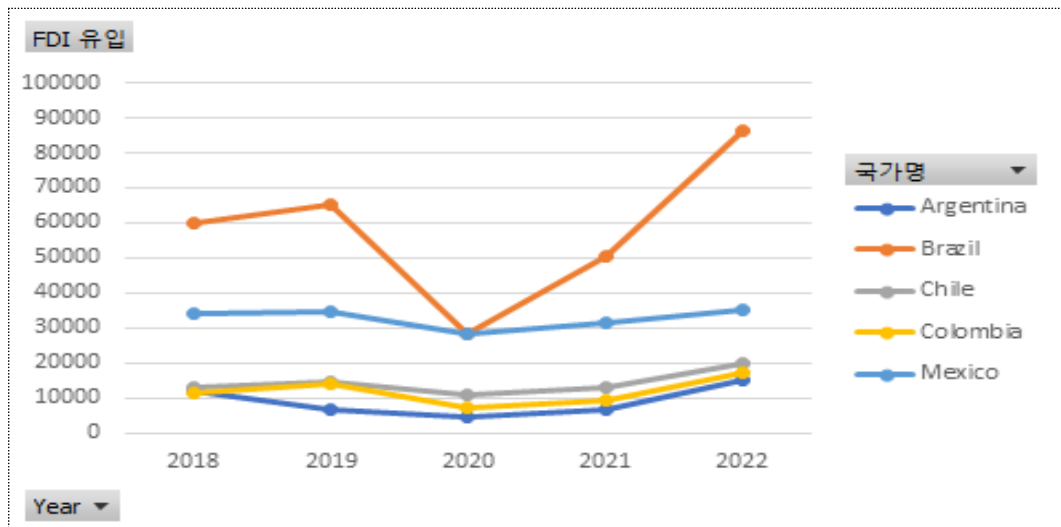
■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FDI) 금액 기준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5위 차지
 - 전임 마크리(Macri) 대통령 취임 이후 '16년 외국인 투자 유입액은 약 3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으나, '17년, '18년에는 각 115억 달러, 119억 달러 기록
 - 그러나 아르헨티나 경기 상황이 악화되며 기존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과 함께 FDI 유입액이 감소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로 인해 40.1억 달러까지 하락
 - '21년 경기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약 68.7% 증가한 67.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2년에는 FDI 유입액이 150억 달러로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임

〈중남미 주요국 FDI 유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	브라질	59,802	71,989	28,318	50,651	86,050
2	멕시코	34,746	32,921	27,934	31,543	35,292
3	칠레	13,031	14,403	10,833	13,194	19,786
4	콜롬비아	11,299	13,989	7,459	9,381	17,048
5	아르헨티나	11,873	6,244	4,019	6,782	15,087



주: 순위는 2022년 기준, 2023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UNCTAD

〈아르헨티나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FDI	2018	2019	2020년	2021년	2022년
FDI 유입	11,873	6,244	4,019	6,534	15,087
FDI 잔액	72,589	70,458	84,319	99,890	116,710
FDI 잔액/GDP	14.02	15.82	22.14	20.50	18.42

주: 2023년 10월 기준 최신 자료
자료: UNCTAD

라. 자원 개발

▣ 광업, 아르헨티나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 가능성 보유

- 현재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0대 금광 중 2개(Veladero, Cerro Negro)를 보유
 - 글로벌 광산기업들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매장량에 비해 투자 속도가 더뎠다. 아르헨티나 국토의 75%가량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
 - 특히 금·은·구리 등을 제외해도 이차전지 등에 활용 중인 리튬 매장량이 많아 자원 개발에 유리한 조건

〈아르헨티나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광물(합금)명	전 세계 생산량	전 세계 생산량 순위
금	3,241톤	60톤 (2020) 세계 17위 생산국
은	24,766톤	1,000톤 (2020) 세계 9위 생산국
구리	2,026만 톤	17,435톤 (2018)
아연	1,221만 톤	14,877톤 (2019)
리튬	87,360톤	6,200톤 (2020) 세계 4위 생산국 *매장량 세계 3위

자료: 칠레 국립 지질학 및 광업 서비스(Sernageomin), 아르헨티나 광업사무국(Secretaria de Minería)

■ 광산업 관련 정부정책

- (광업 현황)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 중 광산업 비중은 약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광산업에 의지하는 페루나 칠레에 비해 비중이 매우 낮은 편
 - 반면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광업 투자액 순위 10위권이며, 리튬 광산 투자액은 세계 1위를 차지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발전할수록 아르헨티나의 광물자원은 더욱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정부정책)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국인의 광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업투자법 (24.196/93)을 제정

아르헨티나 광업투자법 주요 내용

1. 세제 안정: 타당성 조사 시 적용하는 세율을 30년간 동일하게 유지
2. 관세 0%: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본재·원료 수입 시 무관세
3. 탐사 기간 중 세제 혜택: 이중소득세 공제, 부가가치세 6개월 내 환급
4. 감가상각: 3년간 가속상각 가능
5. 주세 최대치 설정: 로열티 최대 3%로 상한선 설정

가. 교역

▣ 한-아르헨티나 교역 현황

- '23년 1~9월, 한국 무역수지 적자
 - 한-아르헨티나 교역구조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무역 형태를 띠고 있음
 - '23년 1~9월 한국은 3.79억 달러를 수출하고 10.31억 달러를 수입하며 -6.52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8년 201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인 9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2년 31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
 - '18년 급격한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아르헨티나 對韓 수입 감소 및 가뭄으로 인한 수출 감소로 교역량이 극적으로 감소
 - 현재 교역액은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수입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아르헨티나의 對韓 수입은 4억 달러 내외를 유지 중

〈한-아르헨티나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수출	836	536	341	332	391	529	379
수입	612	406	865	894	1,824	2,572	1,031
한국 흑자 규모	224	130	-524	-562	-1,433	-2,043	-652
교역 총액	1,448	942	1,206	1,226	2,215	3,101	1,410

자료: KITA(2023.10월)

- 우리나라는 합성수지, 경유, 자동차부품, 회전기기 부분품, 기타 산업기계 등 공산품(자본재, 중간재)을 수출하고 사료·식물성유지·은 등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유지
 -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와 자국 산업 보호정책으로 완성품보다 생산 활동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혹은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기술집약적 제품 위주로 수출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농산물 및 광물 등의 1차 상품이 대부분이며, 전체 수입액 중 사료 비중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음

〈2023년(1~9월) 한-아르헨티나 주요 교역 품목〉

수출 품목	금액(천 달러)	비중(%)	수입 품목	금액(천 달러)	비중(%)
합성수지	38,458	10.16	사료	535,400	51.95
경유	30,652	8.09	식물성유지	174,077	16.89
자동차부품	28,278	7.47	기타정밀화학원료	105,553	10.24
회전기기 부분품	19,110	5.05	은	75,835	7.36
기타산업기계	12,765	3.37	박류	31,115	3.02
건설중장비	11,914	3.15	의약품	29,857	2.89
공기조절기	11,352	2.99	새우	17,072	1.66
기타석유화학제품	8,741	2.31	기타어류	13,992	1.36
기타기계류	8,311	2.19	오징어	11,374	1.10
의약품	7,382	1.95	아연광	7,832	0.76
총액	378,534	100	총액	1,030,651	100

주: MTI 4단위 기준 품목 분류
자료: KITA(2023.10월)

▣ 우리 기업 수출 성공 사례

- 현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바이어와의 협의가 중요
 -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외환보유고 유지 및 확충을 위해 외환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에 따라 바이어들이 수입대금을 선송금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도 파이낸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 우리 기업 M사의 경우 현지 기업들과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기존 T/T 거래에서 대금 지급을 선적일 기준 240일 후에 진행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현재 4~5개 사와 활발히 거래 협의를 진행 중
 - 특히 관련 분야 경쟁국인 중국의 경우 파이낸싱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음
 - 현지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인지, 자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먼저 파악한 뒤 파이낸싱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관을 통한 크로스 체크 등을 시행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
-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통보 A7532호를 통해 수입 승인 카테고리화 및 통관일 기준 60~180일 경과 이후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외환 구매 허용

나. 투자 진출

■ 자원 확보, 남미공동시장 공략을 위한 대기업 진출 등 누적 10.6억 달러 수준

-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17년까지 누적 기준 1.9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18년 포스코의 리튬 광산 인수* 이후 5.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3년도 상반기 기준 10.6억 달러로 집계
 - '19~'21년 투자액 감소 추이를 유지하였으나, '22년 광업 분야 2.77억 달러 투자에 이어 '23년 상반기 광업 분야에 1.4억 달러가 추가 투자되며 투자액이 증가세를 기록
 * (리튬 광산) 포스코, 갤럭시 리소스(호주)로부터 아르헨티나 광산 인수(2.8억 달러) 및 주변 광구 추가 확보('19.10)
- 현지 진출 우리 기업 15개 사,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운영 중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심화로 현지 법인 대폭 축소 및 철수('02) 및 외환 통제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으로 사업 환경 극도로 악화('12)
 - 親기업 성향의 마크리(Macri) 정권 출범(2015.12~2019.12, 14년 만의 우파 정권) 이후 우리 기업의 투자 관심이 증가했으나, 페르난데스(Fernandez) 행정부 출범 후 보호주의로 재선회하며 관심도 하락
 - 이후 코로나19 사태 발생 등으로 아르헨티나 현지 진출은 미미한* 상태
 - 포스코의 현지 리튬 생산 관련 협력업체들의 투자 진출이 최근 투자 사례
 *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투자는 한국 전체 해외 투자금액의 0.07%로 미미한 수준

〈對아르헨티나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법인 구분	항목	2020	2021	2022	2023.6.	합계
현지법인	신고건수	1	1	4	4	10
	신규법인수	-	-	-	1	1
	신고금액	2,800	3,000	277,400	140,000	423,200
	송금횟수	1	1	4	4	10
	투자금액	2,800	3,000	277,400	140,000	423,200
지점	신고건수	-	-	-	-	-
	신규법인수	-	-	-	-	-
	신고금액	-	-	-	-	-
	송금횟수	-	-	-	-	-
	투자금액	-	-	-	-	-
지사	신고건수	2	1	1	-	4
	신규법인수	-	-	-	-	-
	신고금액	17,434	305	-	-	17,739
	송금횟수	7	1	-	-	8
	투자금액	29,595	305	-	-	29,9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3.10)

〈한국 기업의 對아르헨티나 업종별/법인별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6	21	54,953	88	29,424
광업	50	12	976,677	227	827,453
제조업	50	21	148,214	59	53,637
건설업	5	3	4,900	20	2,106
도매 및 소매업	17	6	164,543	20	149,003
운수 및 창고업	1	0	20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882	1	882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13	4	3,342	9	1,641
합계	193	68	1,353,711	424	1,064,14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누적 데이터(검색일: '23.10)

■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 기업 현황

- 판매법인 위주의 진출에서 광산업 및 제조업 진출 증가
 - 아르헨티나의 큰 경기 변동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며 기존 진출기업이었던 세라젼은 코로나19 이후 철수 진행
 - 그러나 최근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수산화리튬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들이 현지 진출을 시작, 광산업 및 제조업 계열사 증가

〈아르헨티나 진출 한국 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진출년도	비고
전자	삼성전자	1996	전자제품
	LG전자	2000	전자제품
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1977	무역, 자원, M&A
서비스업	한국선급	2007	등록 선박 검사, 해운 관련 정부 업무 연락, 신규 등록 유치
	LX판토스	2017	물류
	제일기획	2018	광고 대행
수산업	한성기업	1985	원양산업
광업/ 제조	포스코 아르헨티나	2015	리튬
	포스코건설	2019	포스코 리튬 생산 플랜트 시공
	삼진전기	2021	전력 배전, 전기 계장(포스코건설 협력사)
	(주)코원이엔씨	2021	플랜트 시공(포스코건설 협력사)
	삼진공작주식회사	2022	산업 기계설비(포스코건설 협력사)
	세일엔지니어링	2023	건설/토목(포스코건설 협력사)
	한영엔지니어링	2016	특수 용기 제작(포스코 협력사)
	현대중공업	2022	포스코 1~2차 프로젝트 발전설비 시공(포스코 협력사)

자료: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 (투자 성공 사례) 포스코 리튬 산업
 - 포스코, 살타(Salta)주 움브레 무에르토(Hombre Muerto) 지역에서 염호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 중
 - 추정 매장량은 약 1,350만 톤으로 1단계 생산을 위한 공장은 '24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예정이며, 연간 2만 5,000톤*을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 * 수산화리튬 2만 5,000톤은 전기자동차 60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가능
 - 2단계 생산을 위한 카타마르카(Catamarca)주 공장 투자도 진행 중으로, '25년 6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로 연간 2만 5,000톤을 생산하여 연간 누적 생산량이 5만 톤에 이를 전망
 - 한편 '26~'27년 중 3단계 생산 공장을 시공할 예정이며, 추가로 연간 5만 톤의 리튬을 생산함으로써 연간 누적 생산량 10만 톤 생산 체계를 갖출 예정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 (보건 분야) 의약품 시장 진입 애로 해소를 위한 양국 간 보건 분야 협력 필요
 - 한국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까다로운 제품 등록 절차로 인해 시장 진출 애로
 - 아르헨티나는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등 일부 국가를 '위생 고경계국(High Vigilance Country)'으로 분류,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지 제품 등록이 비교적 용이
 - 반면, 한국과 같이 위생 고경계국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식품의약품(ANMAT)의 해외공장 심사(GMP)를 통한 안전성 인증 혹은 위생 고경계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등록이 가능
 - 의료기기의 경우 '23년부터 GMP 없이 간이 인증 절차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외에도 아르헨티나 외교부 및 경제부와 협의 조정이 필요
 - 한국을 위생 고경계국으로 분류, 간이 인증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보건의료 분야 협약 체결 등 추진 필요
- (공급망) 우리나라 국유지 야타마우까(Yatamauca) 활용을 통한 식량자원 확보
 - 아르헨티나 산티아고델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주에 위치한 약 2만여 헥타르 규모의 우리나라 국유지로, 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농장

- 농장의 전도(EC)는 각 구획별로 2.5~7.2, 5~12.2 정도이며, 산도(PH)는 8.0~8.5, 8.4~8.7 정도로 분석
- 토지 전도가 4ds/m을 넘기면 염분이 많은 토지로 분류. 야타마우까(Yatamauca) 농장은 곡물을 재배하기에는 부적합하나 축산업은 문제없는 수준
- 특히 PH가 8.5 미만으로 나트륨 함유량이 그리 높지 않아서 사료용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상황
- 현재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부지 대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24년 사업 공모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 (서비스·교육) 물류 서비스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와 함께 아르헨티나가 취약한 교육 분야 등이 유망 협력 분야
 - 현지 물류 서비스 플랫폼 업체인 스타트업 A사는 한국 동종 스타트업 C사와 상호 기술 협력 및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 한국 교육용 콘텐츠 제작사 G사는 아르헨티나 A사와 교육용 애니메이션 시리즈물을 공동 제작하고 있으며,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음
- (IT·스타트업) 이외에도 IT 산업 분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과 현지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 유망 분야로 판단
 - 아르헨티나의 경우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공동 사업 추진 등을 통해 Win-Win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개발 가능
 - 현지 IT 계열 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영어 실력 및 최소 9만 명 이상의 IT 계열 전공자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높은 인적 잠재력 보유
- (광산 개발) 先 자금 투자를 통한 리튬 확보(Off-take 계약)
 - 아르헨티나에서 진행 중인 리튬 프로젝트는 외국자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장기계약을 통해 물량 확보 진행
 - 살타(Salta)주 광업협회(CMS)와 면담 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투자자들과의 선계약을 통해 생산 물량 전체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현재 PEA 단계나 탐사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
 - 또한 이미 생산 중인 프로젝트도 확장의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거래 기회 발굴에 적극 활용 필요

- 다만, 先 자금 투자의 경우 유효 프로젝트 선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난관으로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지 공장 설립 시 필요 인력 현지 조달 애로, 수입 규제 등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의 경우 현지 공급사 간 다툼 여파로 탄산리튬 생산 공정에 쓰이는 원재료*를 아르헨티나 관세청으로부터 압류당하는 피해 발생
 - * 탄산리튬 생산 시 상공정에 활용하는 필라멘트를
- (리튬-기술 공동 개발) 부가가치 산업 투자, 현지 공급 리튬 물량 확보 가능
 - 현재 아르헨티나는 탄산리튬 생산공장 외 특별한 리튬 가공공장이 없음
 - 국영기업 Y-Tec이 유일한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공장이며,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
 - 아르헨티나는 현재 리튬을 활용한 부가가치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
 - 기술이 발달한 한국과 현지 기업 간 리튬 배터리 산업 관련 기술 협력은 양국에 Win-Win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또한 현지 배터리 생산 촉진을 위해 국내 판매를 의무화하려는 조짐이 있어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리튬 정련 제품을 생산한다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가능
 - 기술 투자 인센티브 관련하여 살타(Salta)주 광업 차관실 문의 결과, 아직까지는 정해진 게 없으나 관련하여 논의 중이라고 답변
- (농작물 현지 재배) 아르헨티나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국가로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
 - 한국에서 수요가 많으나 공급선 확보가 어려운 품종의 경우, 현지 농장주들과 계약을 통한 계약 재배 시스템 도입 가능
 - 한국에서 필요한 종자가 현지에서 재배 가능할 때 추진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종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함
 - 아르헨티나에서 계약 재배를 시도한 기업이 있었으나, 한국-아르헨티나 간 농림수산물 관련 인증제도 부재로 한국산 종자 수입에 실패한 사례 존재
 - 통상 협상 의제화(한-메 T/A), 양국 농림수산부 간의 MOU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지원 필요
 - 아르헨티나는 농축산업이 발달한 나라로 한국이 부족한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음
 - 한국에서 필요한 곡물을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계약 재배 후 공급할 수 있다면 식량자원 공급처 다변화 및 공급난 발생 시 해소에 기여 가능

Chapter



진출전략



※ 거시 환경: 신정부 출범이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 변화 및 경제 정책에 맞춰 현지 진출 기회 발굴 필요

1 PEST 분석

P 정치정책 (Political)	• 정치 변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예의 주시 필요 • 법안 변화: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 경제성장 추구, 산업/제조업 장려 법안 논의 중으로 관련 프로젝트 수주 기회 모색 필요 • 경제 자유화 vs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기로에 있어 11월 19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결과가 매우 중요
E 경제 (Economic)	• 경제성장률(GDP Growth): -4.2% 전망(EIU)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불안감 가중) 예상 • 환율: 현 고정환율 체제에서 친시장주의 야당이 집권 시 시장환율을 따라가게 되면 급격한 상승(devaluation) 전망 • 인플레이션: 환율 압박으로 세 자릿수 고인플레이션 지속 전망
S 사회문화 (Social)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병행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며, 인터넷 구매, SNS, e-마켓플레이스 사용 증가 • 한편 OTT 플랫폼을 통한 한국 문화(한류) 콘텐츠 유입 증가 및 현지 문화와의 융합은 새로운 시장 개척 기회로 작용
T 기술 (Technological)	• 현지 기술 성숙도는 아직 낮은 편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현지 산업 육성 정책 개발 중 • 전략광물자원인 리튬의 경우, 고부가가치화 및 밸류체인 형성을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 현지 생산 체계 구축 희망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아르헨티나 시장 SWOT 분석〉

강 점(Strength) • 빠른 신기술-제품(IoT) 접목, 높은 품질에 대한 현지 바이어들의 선호도 증가 • 우수한 품질, 납기 준수 등에 따른 신뢰도 • 우리 기업 자원(리튬)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현지 진출 가능성 증가	약 점(Weakness) •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특히 수입/외환 규제 관련 이슈) •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 열위 • 현지 제조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완성품 수출 애로 발생
기 회(Opportunity) • 광산업/자동차 산업 등 투자 인센티브 수혜 • 온라인(이커머스) 시장 성장세 유지 • 현지 의료기기 등록 절차 간소화(한국 발급 자유 판매증명서 인정) • 한류의 점진적 확산으로 인한 한국 제품 호감도 상승 •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무역협정(TA) 협상 진행 중	위 험(Threat) • 중국 기업의 공격적인 현지 진출(저가 공세, 파이낸싱 제공 등을 통한 우위 선점) • 통상(수입/송금) 규제 지속 가능성 •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현지 소비시장 •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소비 위축 및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가신용도, 경제정책 등 급변 가능성

전략 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광산업 투자 프로젝트 공급 기회 모색 •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의료시장(의료기기, IT 기술 접목 제품 위주) 공략	유망 산업(광산업/차/의료기기)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송금 규제/수입 규제 대응을 통한 현지 시장 개척 • 뉴 트렌드 제품 현지 마케팅 진행,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 적극 홍보	무역보험 활용한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진출
WO 전략 (기회 포착)	• 현지 제조 시 이점을 활용한 중간재, 조립 키트 판매 기회 발굴 • 아르헨티나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 및 기술 협력 등	기술 협력을 통한 현지 제조, 안정적인 공급
WT 전략 (위협 대응)	•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 방안(기술력 등) 강구 •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시장점유율 제고	디지털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유통 사업 추진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일반기계/기자재	○ 자동차산업 등 노후화된 기계설비 교체 수요 적극 발굴 ○ ICT·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자재 협력업체 발굴 필요 ○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인프라·에너지 등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전망인바, 관련 기자재 관심 기업 발굴 추진
기계설비 (자동화 설비)	○ 현지 제조·프로젝트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을 활용, 자본재 위주 진출 모색 ○ 제조업체 니즈 파악 및 설비 판매, A/S 제공 가능한 협력업체와 파트너십 구축
의료기기	○ 현지 식약청 제품 등록 간소화 활용, 홍보 강화 및 우수한 기술력 부각 등을 통한 차별화 노력 ○ 제품 등록부터 판매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및 파트너 발굴 등 접근 필요
중간재	○ 현지 제조를 위한 중간재 홍보, 기술 협력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 진출 필요 ○ 현지 바이어와 Fill & Finish 방식부터 현지 제품 공동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모델 개발 추진
소비재 (식음료)	○ 한류 확산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식품 및 프리미엄 소비재 등 유망 제품 위주 진출전략 수립 ○ 주요 대형 유통망, 온라인 유통망 입점 기회 모색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집중 필요

아르헨티나 대내외적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시장 선점 필요
(내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각종 경기 부양 정책 활용 인프라 투자 및 프로젝트 참여 등
(외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 시장점유율 확보 및 디지털 판매 채널 진입전략 수립 필요

3-1. (일반기계-기계설비) 프로젝트 위주 품목/투자 진출 기회 모색 필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시행 중
 - * 자동화 설비, 일반 자본재 등은 현지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품목 중 하나임
 - * 현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 수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지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정부의 프로젝트 관련 자본재 수입 완화
 - 법령 277/2022 제정을 통해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오일 및 가스 분야의 생산기업에는 외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 이러한 상황을 잘 이용하여 관련 프로젝트 자동화 설비, 자본재 등 진출이 유망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입 기회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자동차산업 부양법 제정, 글로벌 메이커 현지 생산 투자 증가
 -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지 자동차 제조기업들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부양법인 법령 27686 제정
 -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은 1. 부가세 환급, 2. 부가세 하향 조정(21% → 10.5%), 3. 소득세 정산 시 가속상각 허가, 4. 2031년까지 수출세 0% 유지임
 - 현지 제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신규 제조 설비 도입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완성차 수입은 수입 물량 제한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 포드(Ford)는 브라질 공장을 폐쇄하고, 아르헨티나 파체코(Pacheco) 공장에 6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해 Ranger 신모델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
 - * 중국 Chery Group, '23년 아르헨티나 내 전기차 생산 및 리튬 배터리 개발을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외국인 투자 친화적인 광물 산업, 투자기업 증가 추세
 - 세계적으로 리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략광물로 지정(국유화)하는 추세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해외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투자 가능
 - 원칙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음*
 - * 법률 제21382호: 해외 투자 유치 촉진을 목표로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자 대우에 있어 차별 금지 원칙을 설정

- 또한 광업투자법 제24196호는 광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주 정부 광업 로열티 상한선(3%)을 두는 등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광물) 포스코의 현지 광물 생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모색
 -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해 각종 설비 및 기자재가 필요하며, 한국 협력업체 등을 통해 일부 조달 추진 중
 - 특히 포스코의 경우 1단계 생산공장 건설과 함께 2단계 투자를 진행 중이며 3단계 투자까지 계획하고 있어 관련 설비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전망
- (자동차 산업) 생산라인 자동화 시스템, 생산용 설비(프레스 등)류 등 제조 설비 및 장비 공급 모색 필요
 - 아르헨티나 정부의 산업 현지화 정책에 따라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자동차 부품류까지 현지 생산 추진 전망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 생산용 설비 등의 현지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설비·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
 - 다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입 규제 및 외환 송금 규제로 인해 파이낸싱이 불가피한 사례가 많은 상황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주시 필요
 - * 상당수의 품목이 현지 수입 통관 후 180일이 경과된 이후에 수입대금 송금 가능
- (오일&가스 분야) 한국 제품기술 홍보 강화 및 발주처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주요 발주처 대상 기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국 제품의 기술 경쟁력 홍보
 - 현지 발주처의 한국 초청을 통한 친한파 양성 및 우리 기업 참가 기회 창출
 - * Global Project Plaza, MDB 플라자 등 현지 발주처 초청사업 활용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발주처-무역관-기업 간 유기적인 소통협력 중요

3-2. (의료기기) IT 융합 및 신기술 제품으로 현지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3년 9.1%에서 '27년 말에는 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아르헨티나 의료장비 수입 현황
 - * 제조업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수입제품 비중이 80%에 달하며 '22년 수입액은 8.3억 달러 수준 (HS Code 9018~9022)
 - * 현지 생산이 가능한 Low-mid Tech 분야는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주로 현지에서 조달하고, High Tech 분야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입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청(ANMAT), 한국 발행 자유판매증명서(FSC) 인정
 - 아르헨티나에 한국 의료기기 등록 및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위생 고경계국에서 제품이 이미 유통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했음
 - * FDA(FDA certificate for foreign government) 혹은 CE mark, 유럽 발행 FSC 등
 - '23년 1월 1일부로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한국 발행 자유판매증명서(FSC)로 현지 제품 등록 및 유통 가능
- '24년 정권 교체 시 수입 규제가 완화되며, 최근 1년간 크게 감소한 수입 물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
 - '23년도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바이어들의 거래 결정 보류, 정부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수입 규제 조치로 거래에 차질이 발생했으나 '24년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화가 되면 수입 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 고품질(high-end)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아르헨티나는 만성적 인플레이션 및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공급업체가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 의료기기 구입 결정 시 가격 요소가 아직까지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저가 제품은 주로 중국산 혹은 현지 생산 제품으로 시장 공급이 가능한 상황
 - High-Tech 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은 가격 수준이 높지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차별화된 기술력 및 레퍼런스 강조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타국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은 열위
 - 아르헨티나 보건 시장은 보수적으로 새로운 브랜드에 대해 소극적이지만, 유럽 또는 기타 중남미 국가 판매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reference 적극 활용 필요
- (High-Tech 의료기기) 현지에서 제조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대부분 Low/Medium-Tech 제품으로 인큐베이터, 일반 진단장비, 임플란트 등임
 - 또한 의료기기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High-Tech 의료기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예를 들어, 현지 병원에서는 가스통과 비슷한 의료용 산소통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 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산소 공급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병원에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 (경쟁력)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상당수가 디지털 기술 등이 적용된 High-Technology 제품이 많음
 - 보편적인 제품이 아닌 기술력을 접목시킨 제품의 경우 현지에서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의료기기 완제품에 비해 비교적 원활하게 수입 과정 진행 가능
- (진출 방법) 현지 인증 취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인 진출전략 수립
 -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품청(ANMAT) 인증은 국산품 보호정책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여, 취득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 소요
 - 한편, 제품 등록/인증 시 현지 에이전트 혹은 파트너가 필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경험 많은 파트너 발굴 필요

3-3. (소비재) K-Culture 문화 기반 현지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한국 문화 및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 K-Culture 인플루언서, 영화, OTT 플랫폼 등을 통해 한국 제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 확대
 - * '23년 7월 '김치의 날'을 세계 최초로 국가 공식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국가적인 관심 증가
- 아르헨티나는 대체로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한국 문화를 반영한 제품은 높은 경쟁력 보유
 - * 다만, 중국 제품이 한국어로 표기되어 수입되거나 착각하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 제품과는 다른 한국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차별화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K-Pop, K-Drama에 이은 K-Food의 부상
 - 케이팝 부상, 한국 드라마의 성공, OTT 플랫폼을 통한 언어장벽 해소 등으로 한국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며 한식이 현지 트렌드의 하나로 자리 잡음
 - '21년 9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김치의 날' 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23년 7월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며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제정
 - 현지인들이 김치를 따로 구매하는 등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아르헨티나의 식문화가 점차 변화를 보이는 추세
- 한식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식 식료품 조달은 어려운 상황
 - 현지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장류나 고춧가루 등은 수입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 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
 - 또한 식료품뿐만 아니라 조리도구·식기류도 수입이 원활하지 않아 완벽한 한식을 현지에서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진출전략)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한식 밀키트(Meal Kit), 레토르트(Retort) 제품, 한국 과자(스낵)류 등 유망 제품 위주 진출전략 수립
 - 현지에서 점점 이슈가 되며 현지인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장류·액젓 같은 제품의 경우 한식을 요리하지 않는 사람들의 호감도가 낮은 편
 - 현지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 위주로 현지 시장 진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 한편 K-Pop 스타/그룹과의 콜라보 등을 통해 이슈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갖춘 제품들의 시장 진입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
- (진출 방법) 아르헨티나에서 식료품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국립식품의약청(ANMAT)에 수입/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제품 등록 진행 가능
 - 현지 업체가 경험이 없을 경우 수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업체를 발굴해서 시장 진입 추진 필요
 - 샘플 수령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무역사절단이나 일반 출장 등을 활용해 핸드 캐리로 샘플을 가져와 직접 관심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
 - 한편 K-Food 부상에 따라 현지 주류 사회를 대상으로 한 한식 프랜차이즈 진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품목명 1		
오일&가스 배관시설, 기자재 (밸브)	선정사유	○ 오일&가스 프로젝트가 경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중으로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 가스 배관의 경우 현지에서 제조가 가능 ○ 다만, 전반적인 시설에 필요한 밸브류·기자재류의 경우 제조기업이 전무해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경쟁동향	○ 주요 수입국은 중국(40%), 미국(16%), 이탈리아(7%) - 저가의 중국산 제품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 장악 - 중국산을 제외한 미국/유럽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높은 품질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현지에 인식되어 있음
	진출방안	○ 프로젝트 수주 가능한 파트너사 발굴 중요 - 동 품목의 경우 프로젝트 위주로 대량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지 유력 에이전트 또는 파트너사 발굴을 통해 시장 진입 추진 필요
품목명 2		
전력기자재, 광케이블 등 인프라 구축용 기자재	선정사유	○ 오일&가스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등으로 전력산업 공공 조달 수요 성장 - 차기 정부도 현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자재 수요도 증가할 전망
	시장동향	○ 대부분의 프로젝트와 비슷하게 에이전트와 진행 - 현지 에이전트가 여러 공급업체 가격을 비교해 입찰에 참가하는 상황으로 우리 기업 제품이 가격경쟁력 열위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경쟁동향	○ 중국·일본 및 브라질 제품의 현지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브라질 생산 제품의 경우,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인한 유리한 관세 및 물류 측면에서 제품 조달이 편리하다는 강점이 있어 한국 제품이 가격/품질 경쟁력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
	진출방안	○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 필요 - 대부분 입찰로 구매가 진행되는 품목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 - 또한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품질경쟁력 또는 차별화된 파이낸싱 제공 등을 통한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 3		
자동차 산업 자동차 시설 (자동 컨베이어, 로봇 등)	선정사유	○ 현지 진출 자동차 OEM(GM, VW, FORD 등)에서 4차 산업(자동화 설비)에 투자 중으로 생산 자동화 시스템, 자동 컨베이어 벨트, 로봇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자동차 산업 장려정책 시행(2022년 9월) 및 현지 OEM(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라인 추가 등으로 자동차 산업 생산시설 관련 투자 확대 -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제조 관련 투자가 추진되고 있어 관련 설비·기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 판매는 다소 저조하나 브라질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생산량 증가 추세
	경쟁동향	○ 자동화 시설의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프로젝트 적합 여부, 설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 ○ 또한 상대적으로 투자 금액이 다른 품목보다 높아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 reference 등을 고려해 주요 공급업체들과 진행하는 경향이 뚜렷

	진출방안	○ 미국·유럽 등지에서 OEM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reference를 활용해 접근하면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함 -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아 현대차 납품 이력도 어필이 가능하므로 활용 필요. 현지 주요 공급업체(TIER 1, 2)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진출 방식도 효과적일 수 있음
품목명 4		
High-End 의료기기	선정사유	○ '23년부 대한민국 식약청에서 발급한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제품 등록 서류로 인정, 의료기기 등록 절차 간소화 - 아르헨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관심도 및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 전망 ○ '24년 정권 교체 시 수입 규제가 완화되며, 최근 1년간 크게 감소한 수입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 - '23년도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바이어들의 거래 결정 보류, 정부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수입 규제로 거래 차질이 발생했으나, '24년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화가 되면 수입 여건이 점차 개선 전망
	시장동향	○ 저가 중국·인도산 의료기기 및 Low-Tech 제품의 경우에는 현지 제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High-Tech 제품의 경우 현지 R&D 투자기업 부재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특히 중국 외에도 인도 정부 측이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산업 진출에 관심을 보여 한국과의 경쟁 심화 예상(Expomedical 등 주요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전시회에 국가관 설치 등)
	경쟁동향	○ 저가 중국제 또는 고가 유럽/미국/일본 제품들이 기존 수입시장을 장악 - 한국 제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지도가 상승하며, 시장 진출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제품 등록 이슈(위생 고경계국에서의 판매 증명서가 없을 시 현지 식약처 등록 애로) 등으로 인해 시장점유율은 낮은 편
	진출방안	○ 현지 의료기기 등록 절차 간소화를 활용, 현지 식약청 등록 유력 바이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 추진 ○ 현지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디지털·IT 기술 등이 접목된 High-Tech 제품의 시장 진입이 유리 ○ 의료기기 사절단, 현지 전문 전시회(Expomedical) 참가 등 현지 방문 사업 추진 - 아르헨티나 바이어들의 경우 높은 비용과 원거리로 인한 비선호. 현지 방문을 통해 유력 바이어들과 면담 및 스킨십을 형성하는 방안도 효과적
품목명 5		
인스턴트 조리식품 (라면 등)	선정사유	○ 한류 전파로 인한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 다만, 조리가 어려운 식품보다는 손쉽게 조리가 가능한 제품이 현지 시장 진출이 유리할 전망
	시장동향	○ 현지 대형 유통 마켓에는 Maruchan 등 브라질에서 제조되는 인스턴트 라면 제품이 있으나, 한국산 제품은 없음 - 라면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인스턴트 조리식품은 아직까지 한인 슈퍼마켓, 차이나타운 등 아시아 식품점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장 확대 여지가 있음
	경쟁동향	○ 라면의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일본 메이커 제품이 가장 큰 경쟁자이며, 최근 한국산 라면의 디자인과 포장을 그대로 모방한 중국산 제품도 일부 유통 중 - 다만, 불닭볶음면 등 한국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실한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내 대형 유통망 진출 등 노력 필요
	진출방안	○ 현지 유통업체와의 공동 마케팅 등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 도모, 온라인 유통망 등 활용 필요 - MZ 세대 공략을 위한 SNS 마케팅 시행 등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자동차 설비 서비스	선정사유	아르헨티나 주요 자동차 생산 OEM, Tier 1들이 현재 생산시설에 투자를 진행함에 따라 자동차 설비 설치 및 사후 유지보수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자동차 산업 장려정책 시행 및 현지 제조기업(GM, VW, FORD, RENAULT 등)의 신규 모델(SUV, PICK UP) 생산라인 증설 등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 확대. RENAULT의 경우 현재 생산시설 설비를 완공하여 하루 약 280대 생산 진행 중. 자동차 설비의 경우 지속적인 컨트롤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관련 유지보수 서비스 수요 상존
	경쟁동향	자동차 설비 유지보수는 가격 경쟁력만으로 어필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서비스 품질이 매우 중요함. 또한 현지 자동차 생산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특정 기업들이 존재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운 실정
	진출방안	대부분 프로젝트를 시공한 업체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공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진입 모색 필요.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에이전트·하청업체 등과 협력 방안 마련
품목명 2		
마켓플레이스 (상거래 플랫폼) 구축 서비스	선정사유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상호 이득이 되는 가격 제시 등이 가능한 플랫폼임. 급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겪으며 기존 시장에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좋은 대안이 되었고, 인터넷 사용 인구 증가와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더욱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
	시장동향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현재 주요 SNS(Facebook, Instagram 등)에서도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하나임. 소비자와 구매자가 한눈에 보인다는 점 등으로 훌륭한 마케팅 수단인 SNS 기반 마켓플레이스는 대부분 소비자 위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일반 소비자는 SNS 플랫폼 점유율이 매우 높아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아닌 이상 진입이 어려운 상태. 또한 현지 스타트업 및 유니콘 기업이 IT 계열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임
	진출방안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자 위주 마켓플레이스가 아닌 기업 간 마켓플레이스 (B2B) 구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현지 시장 진입에 유리할 전망. 예를 들어, 물류산업 중 개인 트럭 운전자와 현지 운송 수요를 연결하는 서비스, 에듀케이션 서비스 (온라인 강좌 혹은 교수와 연결하는 서비스) 등의 마켓플레이스 구축이 일반 소비자 마켓플레이스 구축보다 현지 진입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예상
품목명 3		
K-Pop 콘텐츠 서비스	선정사유	K-CULTURE의 현지 시장 진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K-POP에 대한 관심도 지속 증가
	시장동향	현재 아르헨티나는 한국문화원·한인회 등을 통해 K-MOVIE, K-FOOD 등 한국 문화가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K-POP은 여러 아이돌 그룹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면서 인기가 매우 높으며, K-POP 안무(Choreography) 대회도 개최되는 등 아르헨티나의 한국 콘텐츠 소비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한국 문화와 중국 및 일본 등의 아시안 문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려가 될 만큼 경쟁이 크지 않음. 다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적재산권(라이선스 등)에 대한 개념이 미미하여 무분별한 비공식 소비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에이전트 선정 등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 예방 시급
	진출방안	콘텐츠 사업의 경우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다양.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한 온라인 공연 서비스나 이벤트성 라이브 방송 진행, 라이선스 판매를 통한 현지 머천다이즈 제품 제조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 및 추진 가능
품목명 4		
모바일 의료산업	선정사유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의료 수요 증가와 함께 정보 데이터화 필요로 인해 시장 형성. 원격의료 플랫폼이 일부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님
	시장동향	아르헨티나는 인구당 의사 수가 최상위권에 위치했으나, 인프라는 적절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 매우 노후화되어 있음. 특히 진단에 필요한 혈액검사, 엑스레이, MRI 등 결과는 모두 손수 전달되며 처방전 또한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사 변경 시 환자의 병력 관리 등에 애로사항 발생.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현재까지도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사진으로 전달하는 등 디지털화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의료 소프트웨어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
	경쟁동향	M Bionics(스페인), Henry Schein(스페인), Cloud X tech(미국) 등 유럽 및 미국계가 시장을 장악. 이는 언어장벽(스페인어 사용 국가)이 큰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서비스 업종인 만큼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페인어 번역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이슈임
	진출방안	AI를 활용한 자동 번역 서비스 제공이나, 스페인어 서비스 제공은 현지 시장 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 아르헨티나 현지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서비스 현황 및 특성 등을 반영, 현지 시장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첨부 3 '24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마케팅	· 우루과이(관할지) 이동 무역관 운영 * 주요 소비자·산업재 수입·유통업체 방문 상담회 개최(온라인 상담 병행)	2분기/ 몬테비데오
2		· 유망 소비자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 신규 유통망 진입, 제품 마케팅 지원	2~4분기/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3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시행 * 신규 판로 개척, 세일즈 랩 운영 지원	연중/ 부에노스아이레스
4		· 의료바이오 시장 토털 패키지 사업 * Expo Medical(9월) KOTRA 부스 참가 * 대리 상담 및 화상 상담회 개최 * 브라질 Hospitalar 전시회 연계사업 추진	연중/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루
5		· 아르헨티나 자동차부품 GP 사업 * OEM/Tier 1, 2 핀포인트 상담회 * 주요 수입·유통업체 파트너링 상담회 * Automechanika 전시회 연계사업 추진	연중/ 부에노스아이레스, 꼬르도바
6	ESG+	· 글로벌 ESG+ 사업 추진 * 지사화 기업 등과 기술학교 등 개최	2~3분기 중/ 부에노스아이레스
7	프로젝트 (그린 에너지)	· 아르헨티나 폐기물 관리 개선사업 * KEITI,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 등 협력	연중/ 부에노스아이레스
8		· 우루과이 폐기물/오수처리 기술협력 지원 * 몬테비데오시, 말도나도시 등 협력	연중/ 몬테비데오, 말도나도
9	프로젝트 (ICT)	· ICT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 * 통신기자재 국영통신사(ARSAT) 및 3대 통신사 등 납품 지원	연중/ 부에노스아이레스
10	콘텐츠	· 한국 콘텐츠 도입 및 공동 개발 등 협력 지원 *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웹툰 등 유망 콘텐츠 * KOCCA, BA 주정부 등 협업 추진	연중/ 부에노스아이레스
11	투자 진출 지원	· 현지 투자 진출(P사 동반 진출) 기업 지원 * 원부자재 소싱, 현지 전문가 연계 등	연중/ 살타

첨부 4

'24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 2024년 특별한 정치 일정 없음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아르헨티나 농업 전시회 (EXPOAGRO ARGENTINA)	2024.3.5~8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전시회 (Automechanika Buenos Aires 2024)	2024.4.10~13	
아르헨티나 광업 전시회 (Argentina Mining)	2024.6월(미정)	
아르헨티나 건축 전시회 (BATIMAT EXPOVIVIENDA)	2024.6.26~29	
아르헨티나 의료 전시회 (EXPO MEDICAL)	2024.9월(미정)	
아르헨티나 일반 기계, 기자재 전시회 (EXPO FERRETERA)	2024.11.8~10	
아르헨티나 오일&가스 전시회 (Argentina Oil & Gas(Panorama Minero))	2024.10.23~25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정상	관장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54 11 4313 0736	kulshock@kotra.or.kr
2	김주희	대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54 11 4313 0746	juhee@kotra.or.kr

2024 아르헨티나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